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강 덕 귀 (보은삼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가족내의 인간관계인 부부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온정적·통제적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온정적·통제적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교육이나 유치원 교사 및 상담현장 등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청주시 소재 2개 유치원에 5-7세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질문지가 일치하는 총 179쌍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으로 분석되었다.

유아의 반항행동, 공격성 행동,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온정적이지 못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통제적 관계로 나타났다. 유아의 주의력 결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관계와 어머니와 자녀의 통제적 관계로 나타난 반면 유아의 미성숙 행동이나 심리적 불안행동은 부부관계와 어머니와 자녀의 온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외면적 문제행동인 공격성, 반항, 위축 행동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둘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성숙 행동이나 심리적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은 어머니와의 관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행동에는 다른 문제행동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통제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전체 문제행동을 예측해 주는 요인은 부부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통제적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온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부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보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온정적 관계와 아버지와의 통제적 관계도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의 갈등과 아버지와의 통제적 관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어머니와의 온정적 관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온정적 관계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어떤 영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